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에 지역사회 힘 모은다

대전시-식료품 유관 단체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 협약

대전시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운영사와 식료품업 관련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중소기업프랜차이즈협회, 나들가게협의회 등 식료품 관련 단체와 시 공공배달앱 ‘부르심’과 ‘휘파람’을 각각 운영하는 만나플래닛과 에어뉴가 참석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민·관 협력 배달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으나, 저렴한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에 따라 시와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 업무협약 단체들은 가맹점 모집과 교육·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온통대전 배달앱 무료배달 사업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화한다.

배달앱 운영사는 가맹점 및 고객 유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배달앱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온통대전 홍보대사에 1993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맛집 평가 유튜버인 ‘맛상무(본명 김영길)’를 위촉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온통대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배달앱뿐 아니



1 대전광역시(축산물 배달앱) 2 한화이글스 대 LG트윈스 프로야구 경기에서 온통대전 홍보대사인 대전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가 시구하고 있다. 3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라 온통대전이 제2의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문 대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